

Radiectomy 와 hemisection 처치후 시대치 이용.

다근지에서 치근단 병소나 혹은 치근하나의 치주조직 파괴로 탈치를 해야 할 경우가 자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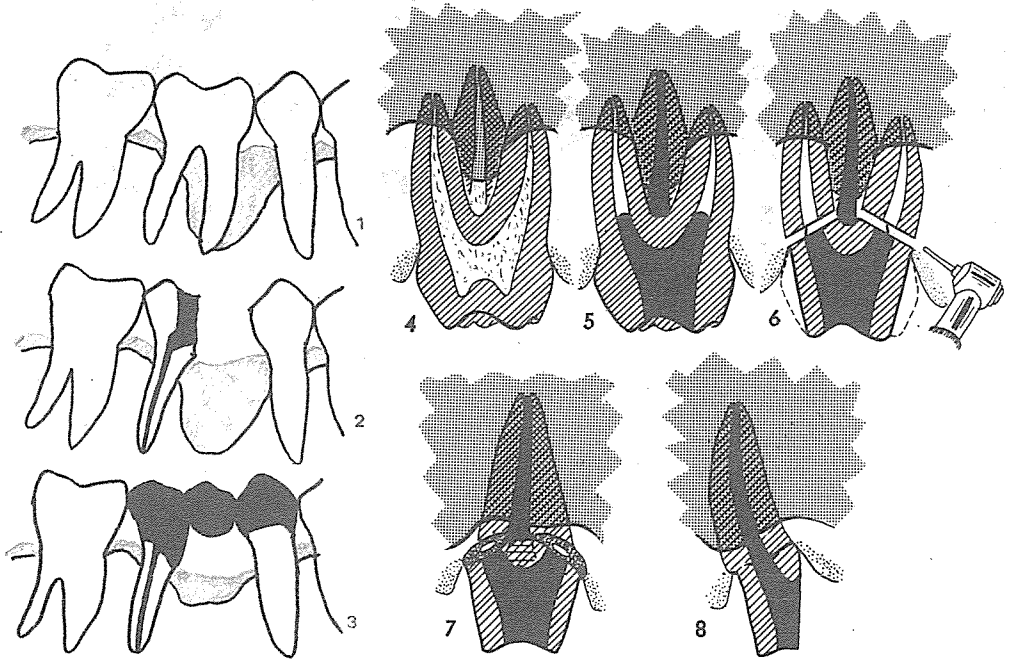
이때 이 치아가 지대치-특히 최 후방 구치인 경우나 보철치료의 설계에서 중요한 치아가 될 경우에는 치아 보존이 필요하다. 이때 나쁜 치근을 잘라 제거하고 좋은 치근을 남겨 보철설계에 이용하므로 해결할 수도 있다.

다근지에서 crown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나쁜 치근만 잘라내면 radiectomy라고 할수있고 나쁜치근을 포함해서 crown 부위까지 받은 잘라내면 hemisection 이라할 수있다. 이러한 술식에 필요한 조건은 남겨둘 치근의 치주조직이 건강하고 근관치료가 잘 행해졌을 경우이다.

먼저 구강검사와 방사선사진으로 남겨둘 치근과 제거할 치근을 선택하고 해당치아에 근관충진을 한다. 이때 남겨둘 치근에만 완전한 충전이 필요하다. 절단 노출부위는 아말감 충진을 한다. 이 술식후 치근과 치관을 잘

다내고 봉합후 2~3주후 완전히 치유되면 지대치로 이용한다.

- 그림 1. 진단을 통해 남겨둘 치근과 제거할 치근을 선택한다.
- 그림 2. 보존할 치근에 근관충진 한후 절단 노출부위는 아말감 충진을 한다.
- 그림 3. 연조직의 완전한 치유후에 bridge work의 지대치로 이용한다.
- 그림 4. 결건과 처치할 치근을 선택한다.
- 그림 5. 근관충진을 하고 pulp chamber 부위에 아말감 충진을 한다.
- 그림 6. 제거할 치근을 잘라낸다.
- 그림 7. 충전하지 않는 잘린 치근을 의과적으로 제거한다.
- 그림 8. 지대치로 이용한다.



서울특별시 인정 제12호

아세아치과기공소

대표 이 흥 규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115번지

☎ (763) 8559 · 7518